

'생방송 중 극단 선택' BJ 임블리 끝내 숨져

등록 2023.06.19 05:36:34 | 수정 2023.06.19 16:22:54



온라인 생방송 도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레이싱모델 출신 인터넷방송인(BJ) 임블리(37·본명 임지혜)가 19일 별세했다. 유족들은 이날 SNS를 통해 임블리의 부고 소식을 알렸다.(사진 : 임블리 부고 게시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시스] 안호균 기자 = 온라인 생방송 도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레이싱모델 출신 인터넷방송인(BJ) 임블리(37·본명 임지혜)가 19일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날 임블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고(故) 임지혜님께서 별세하셨기에 부고를 전해드린다. 황망한 마음에 일일이 연락드리지 못함을 널리 해량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임블리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라이브방송 중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고 직전 부천 지역 인터넷방송인들과 술먹방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동석한 다른 인터넷방송인들과 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부천 헬파티'라고 불리는 이 방송은 시청자들의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BJ들 간의 자극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진행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블리는 2006년 잡지 '맥심' 모델로 데뷔해 레이싱모델 등으로 활동했고, 2014년 결혼과 함께 모델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해 왔다.

©튜브가이드

▶홈페이지 : <https://www.tubeguide.co.kr>

▶기사문의/제보 : tubeguid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